

요셉이 지킨 것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기를 바랐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다. 사브낫바네아가 되고 신관의 사위가 되었어도 여전히 자식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지었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온 요셉이었다.

파라오는 요셉을 애굽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새로운 이름을 주고 최고상류층인 신관의 딸을 아내로 주었다. 꿈을 해석하고 위기를 돌파할 대안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총리직을 맡겼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국가 운영 전체를 맡기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적극적인 호의를 베푸는 것 역시 요셉의 애굽화를 위한 것이었다. 늙은 아버지와 형제들 모두가 애굽에 온 이상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요셉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야곱 일행을 애굽의 중심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고센 땅에 머물게 하고 파라오를 만나면 직업이 목축이라 말하도록 미리 계획을 세운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 창세기 46:34**

농사를 짓는 정착사회에서는 떠돌이 유목민을 알본다. 무역을 통해서 서로가 필요한 것을 얻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약탈자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유목민들이었고 애굽처럼 풍요로운 국가는 교역의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목축하는 유목민을 천박하게 여겼다. 요셉의 계획은 성공했다. 파라오는 야곱 일족을 고센 땅에서 살게 했고 양가의 가축을 돌보는 일을 맡겼고 비옥한 라암셋을 소유로 주었다.

요셉이 남긴 것

가족이 애굽에 정착한 이후 기근은 더욱 심해졌다. 기근의 범위가 더욱 넓어져 애굽 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도 본격적인 기근이 시작됐다. 칠 년의 흉년 동안 곡식을 비축한 애굽만이 굶주림을 면하고 있었다. 곡식은 국가 소유였고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을, 그 다음에는 가축을, 그 다음에는 스스로 종이 되어 곡식과 종자를 구입했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서 애굽의 모든 토지가 국유지가 되었다. 국유지의 소유자는 당연히 파라오다. 파라오에게 직접 식량을 공급받는 신관들만이 소유한 토지를 국가에 바치지 않을 수 있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오분의 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 창세기 47:26**

국가 소유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되 소출의 오분의 일을 세금으로 바치는 토지법이 요셉에 의해서 세워졌다. 요셉이 세운 토지법은 사백삼십 년 후 출애굽이 일어나고 광야에서 모세요경을 기록하는 시점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모세의 증언이다.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은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그를 애굽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가 계속 되었고 유혹이 많았지만 그럴수록 요셉은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더욱

굳게 했다. 요셉은 애굽 최고 제사장의 사위였다. 그런 사람이 여전히 애굽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충분히 정치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다. 완벽한 애굽 사람이 되려면 애굽 신을 믿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자신만이 아니었다. 요셉은 이제 막 선진 애굽 사회에 정착한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애굽의 중심도시가 아닌 고센 땅이 머물게 했고 계속해서 유목을 할 수 있게 했다.

요셉의 삶을 묵상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묵상하는데 큰 유익을 준다. 세상에 발을 딛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 어떤 포지션으로 살아갈 것인지 고민한다면 요셉을 보면 된다. 애굽 사회에 사백 년 이상 지속된 법 체계를 만든 것은 요셉이 애굽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었다.